



## 어디까지 해야하나

곽 노 윤 목사(인천호스피스)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한지도 벌써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호스피스를 시작할 때인 98년도에는 호스피스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에게 우스갯소리로 ‘호스피스를 열명을 데리고 있으면 호스피스가 된다’고 말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해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호스피스 사역을 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려운 사역 감당하신다고 말씀 해주십니다.

저희 호스피스는 1994년 11월 2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0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았고 거의 모든 환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돌보아 드립니다. 가정을 방문하다보니 봉사자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를 방문하여 환자의 신체적인 돌봄을 해 드리기도 하지만, 말상대, 맛사지, 맛난 음식 준비, 환자 나들이 동행, 이불빨래(?) 등의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원봉사자들은 환자 방문 시 환자가 한번 이상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자상 과제입니다.

봉사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들의 봉사 범위가 어디까지 인니까?” 사실 봉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봉사자들에게 환자들 이 황당한 것까지 부탁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말도 하십니다. “가족들이 너무해요.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려하지 않고 저희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하면서 가족들의 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봉사자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덜 돌봐드리는 것이 가족들이 환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봉사자들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봉사자들이 어디까지 봉사를 해야하는 것인가?, 우리 봉사자들이 돌봐드리면 가족들이 잘 돌보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혹 우리도 돌봐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가족도 돌보지 않고 우리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 드린담’ 봉사자들의 말도 맞기는 맞는데... 이러한 고민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만약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끔찍 했습니다.

봉사도 역시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이 끝이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환우를 향한 사랑의 섬김 역시 끝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봉사자들의 마음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번 월례기도회 모임에서 봉사자들에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봉사의 끝은 없다고 말입니다.